

호남석유화학, 하락세 전환 불가피!

LG투자증권, 기초유분·EG 가격 스프레드 악화 ... 단기매수전략 필요

LG투자증권은 2월11일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단기매수(Trading BUY) 전략을 권하고 목표가 5만6000원을 제시했다.

밸류에이션 상 저평가 상태와 뛰어난 재무구조 등은 긍정적이나 실적 모멘텀이 2004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LG투자증권은 호남석유화학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005년 예상실적을 기준으로 3.4배에 불과해 전체시장 대비 53.4%나 낮은 반면, 2005년과 2006년 여유 현금규모는 각각 2585억9000만원, 2324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3-2004년 호남석유화학 경영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 된 기초유분과 EG의 가격 스프레드 확대추세가 꺾이고 석유화학산업의 공급증가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스프레드 축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2005년 경영실적은 2004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화 절상도 경영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LG투자증권은 전망했다.

이을수 LG투자증권 연구원은 “호남석유화학은 내수비중이 높아 환율변동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내수가격 역시 원화기준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하락은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5/02/14>